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이라 부르자

‘재래시장’이란 이름은 무언가 낡은 느낌이 든다. 진화되지 않은 ‘재래종’같은 이미지가 겹쳐지기 때문이다. 在來란 말은 변화하지 않고 발전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사물의 모양을 지칭하는 낱말인데, 우리의 전통시장을 재래시장이라 하는 것은 다소 ‘비하하는’ 느낌도 든다.

사실상 재래시장이란 말은 일본식 표현법이다. 당초 ‘조선시대적 장터’라 불리던 것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재래시장’으로 불리게됐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불러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명칭도 품위 있게 바뀌어야 한다.

전통시장도 지금은 ‘옛날시장’과는 많이 달라졌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장터가 된 것이다. 중소기업청과 각 자치단체들이 지원해서 시설현대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많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아케이드가 설치되고, 주차장이 정비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완비되는 등 시설면에서도 발전했고, 온라인쇼핑몰 구축 등으로 시설과 내용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상품권 발행으로 상권 신장에도 커다란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통시장에는 대형소매점과는 달리 훈훈한 인정이 오가는 정취도 있고, 전통상품들이 아직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서 옛정취

를 만끽할 수 있는 풍물도 선보이고 있으며, 풍물놀이, 각설이놀이 등 옛모습을 재현해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바꿔 부르자는 운동은 2000년도부터 시작됐다. 장터의 모습이 현대식으로 바뀌고 있지만, 대형소매점과 차별화하고, 전통적 옛정취를 살리며, 시장의 품위를 높이는 명칭으로 ‘전통시장’이 좋은 것은 물론이다.

명칭변경 움직임은 그동안 꾸준히 전개되어서 2005년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재래시장 박람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현재 대구 서문시장 등의 시장안내도나 관광지도 등에서도 영어 안내문으로 ‘Traditional Market’으로 표기하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상가연합회에서는 연합회 차원에서라도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을 활성화시키겠다고 5월 정기총회에서 “공문서 작성 등에서 전통시장이란 명칭을 상용화하자”고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장 안내방송 등 공식용어 사용시 ‘전통시장’이라 한다.

상인들과 일반 소비자들이 공감하는 명칭이라면, 바꿔부르는 어렵지 않게 확산될 것이다. 상인들이 중심이 돼 명칭변경 캠페인을 열심히 벌여 인식도를 높여야 한다.